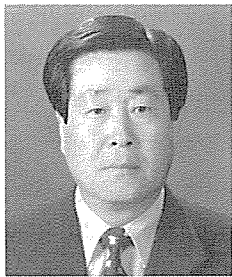


1967년 출범 ... 회원 1천6백여명 한국 수자원학회

한국 수자원학회는 1967년 물부족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창립된 한국수문협회가 모체이다. 그 후 한국수문학회로, 또 1995년 한국수자원학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 학회는 현재 1천6백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학술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제 10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심포지엄을 열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安相鎭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충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데 있어 하천의 개발 등 우리나라의 수자원개발은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함께 파생된 우리의 물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심각해지기 시작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물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극심한 홍수로 인

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어 왔으며 또한, 작년에는 수십년 빈도의 극심한 봄가뭄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에 큰 어려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큰 물난리를 겪기도 하였다.

1967년 11월 20일 물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낙후된 우리나라의 수문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도약대를 마련하고, 수문기술의 근대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수문협회가 발족하였다. 그리고 더 많은 학술활동 참여를 위해 1972년 5월에 한국수문학회로 그리고 1995년 현재의 한국수자원학회로 개명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사회 각계 각층의 수자원 분야에 관련있는 1천6백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학회의 큰 비중을 갖는 학회로 발전하였다.

학술발표때 논문 2백여편

우리 학회에서는 연 1회(5월)의 정기 학술발표회와 연 1회(2월)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제10회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이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먼저 5월에 개최되는 학술발표회는 각 분과별로 국내외의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하고, 저명한 학자를 초청하여 특별강연회를 마련하여 선진 연구결과를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금년 학술발표회에서는 2백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현상과 함께 물 분배문제에 대한 연구도 발표되어 선진 수자원 연구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워크숍은 1993년부터 개최하였는데 수자원, 하천, 상하수도, 지하수 분야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수치모형의 적용방법에 대해서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회에서는 실무자들에게 필요하지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적용프로그램들을 찾아내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를 소개하고 접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10회에 해당하는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올해는 '2차원 지표수 흐름 해석'이라는 과제와 '수문모형 시스템'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지표수 흐름 해석 모델(SMS : Surface water Modeling System)과 유역 흐름 해석 모델(WMS : Watershed Modeling System) 모형의 적용방법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고, 1백21명의 수자원 분야 관련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올 3월에는 '물 위기 시대에 사는 시민의 자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계 물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국내외 저명한 학자와 환경단체, 언론인, 민간단체 및 시민 등이 참여하였다. 전문가들은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비 전문가들에게는 우리나라 물의 현상태와 문제점, 대책에 대한 추진방향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으로 각 지역에서도 지역 내의 하천 및 수자원에 관한 물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물 부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이에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여 소수를 위한 학문이 아닌 모두를 위한 학문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지난 2000년의 제4회 ICHE-2000(국제물과학·공학 학술회의)를 통하여 국제회의 발걸음을 내디딘 이래 2005년 국제수리학회(IAHR)를 유치하여 현재·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범세계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유네스코가 주관하여 유네스코 회원국간의 기술정보 교환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국제수문개발계획(IHP)의 제5단계 사업(1996~2001년)인 생태 수문학과 관련된 주제, 수문학과 기후의 관계,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고, 금년은 제6단계 사업(2002~2007년) 제1차년도 사업으로써 우리나라의 하천

유역 특성에 대한 수문해석 기법을 조사, 개발하는 연구사업을 착수하였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된 한·일 학회간 정기교류와 한·중 정기교류를 위한 발걸음도 내딛게 되어 국제교류의 활성화는 우리 학회 회원의 국제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부족국가」 대비에 최선

학문에 대한 연구를 집적하여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학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면 학회지 발행은 학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1968년 6월에 「물」이라는 회지명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물 종합지가 창간되었고, 시대를 거듭하면서 회지는 「물의 과학」, 「한국수문학회지」를 거쳐 현재의 「한국수자원학회지」에 이르렀다. 그 동안 연구논문과 학술기사를 합본으로 발간하던 「한국수자원학회지」를 1997년부터는 학술기사를 「한국수자원학회지」로, 연구논문은 「한국수자원학회지」로 분리하여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영문 전용판을 발간하고 있으며 영문판 학회지 명칭을 「Water Engineering Research」로 하였다. 발행기간이 아직은 길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과학간행물로서의 규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많은 수자원 분야의 연구원들에 의해 곧 세계적인 학회지로 발전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물은 사소한 우리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크게는 사회경제 분야 전반에 이르기까지 각양 각색의 생활관계와 관련하여 극히 중요하고 대립되는 양면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면에 있어서는 물론 문화, 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반면 금년 9월 태풍 '루사'에 의한 경상도 및 강원도지역의 수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파괴력은 생활에 대한 위협과 더 나가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위협을 가져오는 동시에 산업발전에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인구의 증가, 경제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현대화와 이로 인한 도시 및 사회구조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등 새로운 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산업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가적 물의 수요 욕구는 필연적으로 물 이용의 증대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의 합리적 개발과 균형된 배분 이용은 초미의 급선무가 되어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이며 국가적인 과제에 따라 수자원의 고차적 개발 이용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수자원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여 강력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아도 수자원 과학의 발전이 국가의 산업발전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UN에서 지정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이제 미래를 위한 설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우리 학회는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세부적인 활동까지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며, 경쟁력있는 학술단체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㉞